

세대와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 공정성을 중심으로

2022. 9. 29

성인지데이터센터 박송이 연구원

- 1)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세대별, 성별 '공정성' 인식을 비교하였음. 더불어 공공기관 별 업무수행의 공정성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위 한 방안에 대해서도 세대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음.
- 2) 2030세대는 5060세대 보다 사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에 대해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3) 2030세대는 법 제정 및 집행 기관에 대해 업무수행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4) 2030세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방안 중 '국민 참여확대', '행정절차강화', '기득권양보', '중산층 확대'를 5060세대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함.
- 5) 2030세대 내에서 거처의 점유형태 중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에 해당하는 집단이 사회에 대해 가장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집단 중 2030세대 남성의 공정성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났음.
- 6) 공정성을 특정 세대 특성으로 볼 수 있으나 세대 내 사회경제적 계급에 따른 격차 또한 간과할 수 없음.

I. 서론

청년층을 둘러싼 세대 담론과 공정성 키워드는 여전히 사회적 화두임

- 최근 청년층은 2000년대생까지 확장되어 ‘MZ세대’로 불리며 사회 트렌드를 이끄는 주체이자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음.
 - 구글 트렌드 분석결과, ‘MZ 세대’ 키워드 관련 주제로 2019년에는 ‘세대’ 관련이 유일했으나 2021년에는 ‘메타버스’, ‘갈등’, ‘조직문화’, ‘변화’ 등으로 다양해졌음. 청년세대 특성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¹⁾
- 특히,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분분함.
 - 세대 담론과 공정성 담론을 이끈 ‘90년대생이 온다’, ‘공정하다는 착각’ 등의 도서 열풍 이후 현재까지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은 여전히 사회적 화두임. 인천국제공항 사태 이후 청년층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입시와 취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일부 기업은 ‘AI 면접’을 도입하기 시작함. 최근 모 대학에서는 청소년노동부의 집회로 인한 수업권 방해를 주장하며 일부 학생이 그들을 고소한 사건으로²⁾ 지금의 기성세대가 과거에 노동운동을 주도한 상황과 대비되는 모습에 사회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음.
-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세대가 주로 경험하는 입시나 취업과 관련된 ‘공정성’이 주로 논란이었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공정성’이 유독 청년세대의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음.
 - 세대 간 갈등을 다룬 도서 ‘그런 세대는 없다’에서 저자는 언론이 ‘공정성’ 논쟁을 세대 간 갈등으로 조성하였다고 주장함. 그로 인해 청년세대가 50대 이상 세대를 모두 기득권으로 여기며 그들과 비교하여 본인 시대는 계급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건너차였다 생각한다고 저자는 현재 세대 간 갈등 원인을 설명함. 그러나, 사회의 공정성은 세대 보다 계급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로 세대 내 계급에 따른 인식 차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불공정성이 어떤 분야에 집중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음. 또한, 세대 내에서 사회경제적 계급에 따른 공정성 인식 격차를 함께 살펴보고 현재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관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1) 구글 트렌드에서 2019년, 2021년 트렌드 분석 실시한 결과임.(2022.09.29.접속)

2) “연세대 재학생 3명, 청소년노동자 집회 소음에 민·형사 소송”,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157800004?section=search>

II. 세대 간 공정성 인식 비교

1.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정성 인식 비교

-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회 통합 수준을 파악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음. 공정성은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기관별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세부 항목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만 단일 문항이며 나머지 3개 분야는 각 6개, 16개, 10개 항목으로 구성됨.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2012년부터 조사되고 있으며 이후 매년 항목이 추가되어 2021년에는 총 16개 항목의 공정성 문항이 조사되었음. 본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공정성 인식을 포함하여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16개 공정성 문항을 분석하였음.
 - 항목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하다고 인식한다고 해석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4점 척도의 평균(가중치적용)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음.

[표 1] ‘공정성’ 측정 항목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교육기회	취업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역 균형발전	법 집행	정치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언론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병역의무이행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주거의 기회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 ‘기관별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은 ‘행정기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개 기관에 대해 조사되었음.
 - 공정성을 측정하는 문항과 동일하게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하다고 해석함.
-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 항목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5점 척도의 평균(가중치적용)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음.

[표 2]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항목

공공정보 공개	국민참여 확대	행정절차 강화	공직청렴도 강화
고등교육 기회 확대	취업기회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기득권 양보
상류층의 출생수범	중산층 확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공정성 인식 비교

- 사회경제적 수준은 '개인소득'과 '거처의 점유형태'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개인 소득'은 개인의 지난 1년간 월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값임.
 - '거처의 점유형태'는 '자기 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5개 유형으로 구분됨.
-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주관적 인식지표로 '계층이동 가능성'을 비교하였음.
 -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 자신'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인식함.

2030세대를 청년세대로 5060세대(60대이상포함)를 기성세대로 구분함

- 세대는 20대와 30대 그리고 50대와 60대 이상으로 두 집단을 구성하였음.
 - MZ세대의 M세대는 1980년생부터 1996년생까지를, Z세대는 1997년생 이후를 의미하므로 20대, 30대를 함께 묶었음. 과거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을 주도한 세대로 50대, 60대 이상을 한 집단으로 묶어 2030세대와 비교하였음.
 - '자식세대'인 2030세대와 '부모세대'인 5060세대를 비교하고자 40대는 제외하였음.

2. 세대별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

전반적 공정성에 대해 2030세대가 5060세대 보다 불공정하다 응답

- 전반적 공정성 문항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점수가 높음. 사회 전반적 공정성 평균은 2030세대 2.48점, 5060세대 2.56점으로 나타나 2030세대가 사회에 대해 더 불공정하다 인식함
 - 세대 간 평균 차는 0.08점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2030세대와 5060세대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공정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여성 : (2030세대) 2.51점 (5060세대) 2.59점
남성 : (2030세대) 2.46점 (5060세대) 2.53점
- 세대 간 응답 격차가 있는 항목은 ‘취업기회’, ‘법집행’, ‘성별대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사회경제적 분배구조’로 나타남.
 - 2030세대는 ‘취업기회’, ‘법집행’, ‘성별대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사회경제적 분배구조’ 항목에서 5060세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음. 즉, 2030세대는 해당 항목에 대해 5060세대보다 불공정하다고 인식함.
 - 2030세대에서 성별 격차를 보인 항목은 ‘언론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로 남성이 여성보다 낮았음. 즉, 2030세대 여성이 2030세대 남성보다 ‘언론보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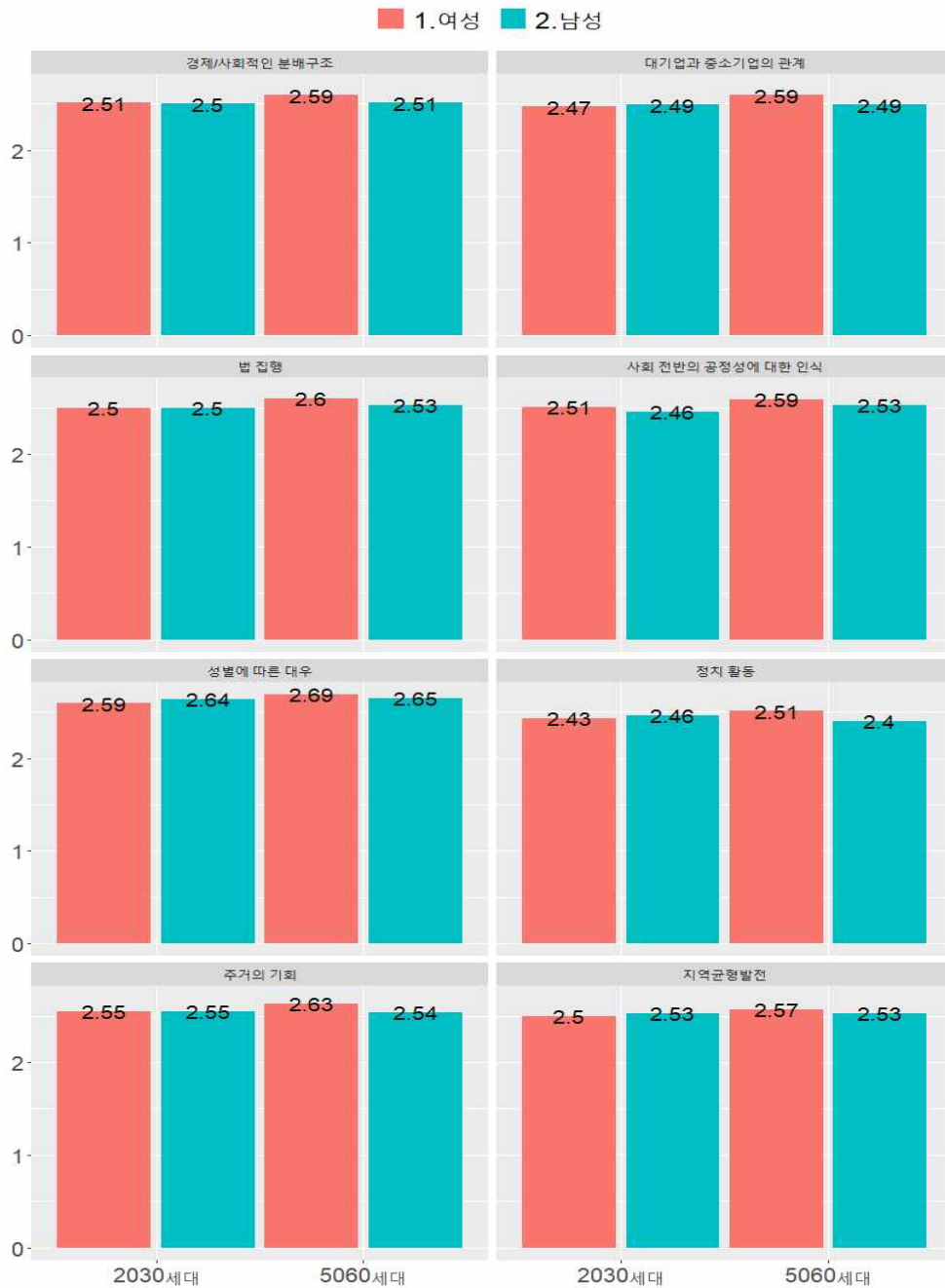
[표 3] 공정성 인식 평균 (세대별, 성별)

(단위 : 점)

	2030세대			5060세대			세대간 차이 (2030세대-5060세대)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2.48	2.51	2.46	2.56	2.59	2.53	-0.08***
교육 기회	2.88	2.88	2.87	2.88	2.89	2.87	0.00
취업 기회	2.53	2.54	2.53	2.59	2.61	2.56	-0.06 [†]
과세 및 납세	2.63	2.63	2.62	2.66	2.67	2.64	-0.03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2.74	2.74	2.73	2.75	2.75	2.74	-0.01
지역균형발전	2.51	2.50	2.53	2.55	2.57	2.53	-0.04
법 집행	2.50	2.50	2.5	2.57	2.60	2.53	-0.07**
정치 활동	2.45	2.43	2.46	2.46	2.51	2.4	-0.01
성별에 따른 대우	2.62	2.59	2.64	2.67	2.69	2.65	-0.05 [†]
언론 보도	2.50	2.52	2.48	2.54	2.58	2.5	-0.0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2.48	2.47	2.49	2.54	2.59	2.49	-0.06 [†]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2.5	2.51	2.5	2.55	2.59	2.51	-0.05 [†]
병역 의무 이행	2.72	2.69	2.74	2.72	2.73	2.70	0.00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2.55	2.56	2.55	2.59	2.62	2.56	-0.04
주거의 기회	2.55	2.55	2.55	2.59	2.63	2.54	-0.04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2.83	2.83	2.84	2.83	2.84	2.81	0.01

주.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 성별로 구분하여 세대 간 격차를 비교하면 남성보다 여성에서 세대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음.
- 여성 내에서 세대 간 격차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한 항목은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지역 균형발전', '법집행', '정치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경제, 사회적인 분배구조', '주거의 기회'로 나타났음. 남성에서 세대 간 인식 격차가 유의미한 항목은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유일했음.
- 여성의 세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이며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대우', '지역균형발전'이 크게 나타났음.



[그림 11] 분야별 공정성 인식 평균(성별, 세대별)

3.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공정성 인식 비교

‘개인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정성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거처의 점유형태’에 따른 공정성 인식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개인 월소득’(지난 1년간 월평균 개인소득) 수준에 따른 공정성 인식(‘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정성 인식에 성별, 세대별 특정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음.

- 2030세대의 경우 700~800만원 이상 구간의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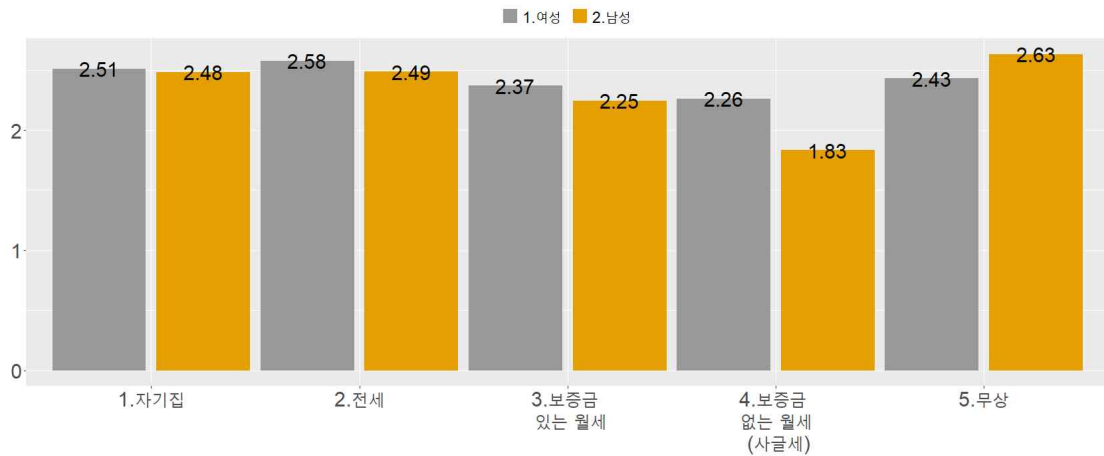


[그림 2] 개인 월평균 소득 수준별 공정성 인식(성별,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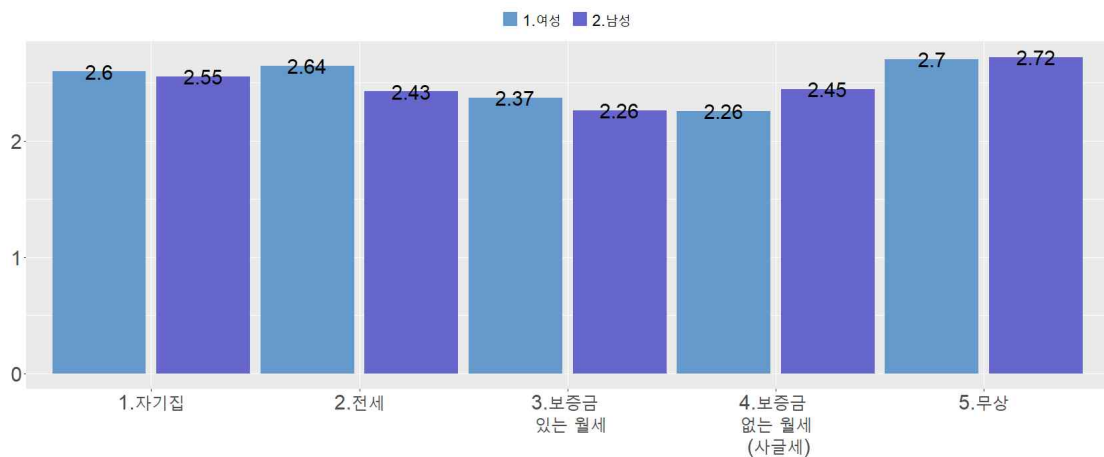
○ 반면, ‘거처의 점유형태’에 따라 공정성 인식을 비교하였을 때, 점유형태에 따라 공정성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 2030세대는 5060세대 보다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를 응답한 집단에서 공정하다는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 집’에 해당하는 집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하였음. 특히, 2030세대 남성 중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로 거주하는 집단에서 공정하다는 응답이 1.83점으로 매우 낮았음.
- 2030세대 중 공정성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여성의 경우 ‘전세’에 해당하는 집단이고, 남성은 ‘무상’에 해당하는 집단이었음. 반면, 5060세대에서는 남녀 모두 ‘무상’이라 응답한 집단이 가장 공정하다 응답하였음.
- 5060세대에서는 남성은 ‘보증금 있는 월세’에 해당하는 집단이 가장 불공정하다 인식하였고 여성은 2030세대와 동일하게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집단에서 가장 불공정하다고 인식하였음.

○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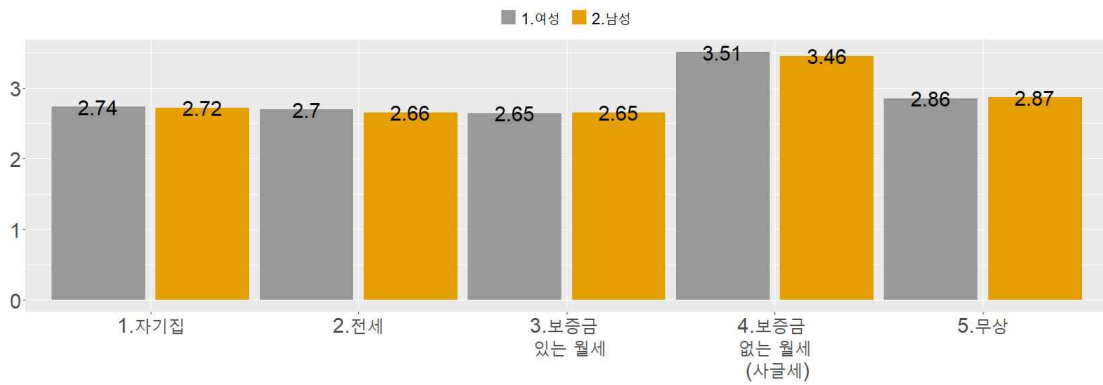
[그림 3] 2030세대의 거처의 점유형태별 공정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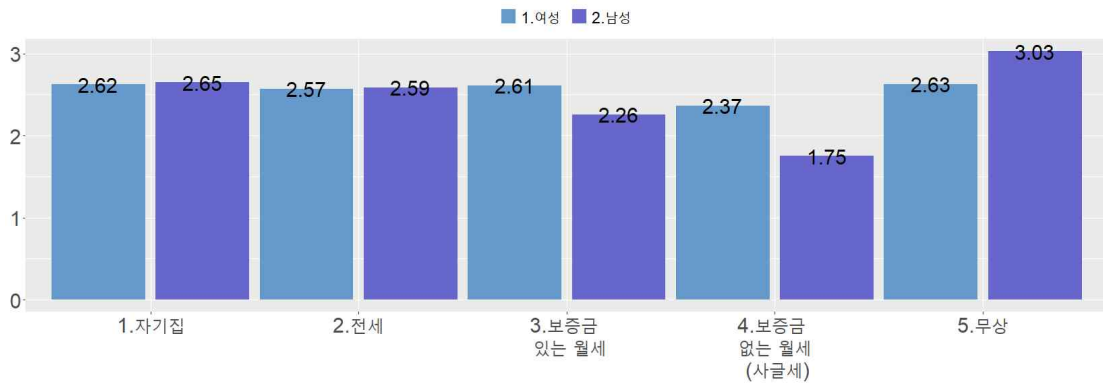
[그림 4] 5060세대의 거처의 점유형태별 공정성 인식

2030세대 중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에 해당하는 집단이 본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함

- 노력을 통한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거처의 점유형태에 따라 비교한 결과, 2030세대에서는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에 해당하는 계층이동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 이는 현재 상태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2030세대의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집단에서 여성은 3.51점, 남성은 3.46점으로 계층이동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음. 반면, 5060세대에서는 해당 집단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특히 5060세대 남성은 1.75점으로 노력을 통한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5] 2030세대의 거처의 점유형태별 계층이동가능성(본인)



[그림 6] 5060세대의 거처의 점유형태별 계층이동가능성(본인)

4.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성 인식

2030세대는 5060세대 보다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기관에 대해 불공정하다 응답

- 2030세대는 5060세대보다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4개 기관 중 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로 2030세대 2.45점, 5060세대 2.52점으로 나타남.
- 2030세대 내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기관은 4개 기관 중 ‘국회’, ‘법원’, ‘검찰’ 3개 기관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낮게 나타남.

[표 4] ‘기관별 공정한 업무 수행’ 인식 평균 (세대별, 성별)

(단위 : 점)

	2030세대			5060세대			세대간 차이 (2030세대-5060세대)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행정기관	2.91	2.92	2.9	2.93	2.93	2.93	-0.02
국회	2.45	2.51	2.4	2.52	2.56	2.49	-0.07*
법원	2.59	2.66	2.53	2.68	2.71	2.64	-0.08*
검찰	2.53	2.57	2.5	2.61	2.63	2.58	-0.08**
경찰	2.58	2.58	2.57	2.63	2.65	2.62	-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1	2.73	2.69	2.71	2.72	2.69	0.00

주.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5.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비교

남녀 모두 세대와 관계없이 ‘공직청렴도 강화’를 가장 중요하다 응답

-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10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응답을 비교하였음. 2030세대가 가장 중요하다 응답한 방안은 ‘행정절차 강화’ 4.06점이었고, 5060세대는 ‘공직청렴도 강화’가 4.00점으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꼽혔음
- 10개 방안 중 ‘국민 참여확대’, ‘행정절차강화’, ‘기득권양보’, ‘중산층확대’ 4개 항목에서 세대에 따른 중요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응답 격차가 유의미한 4개 항목 모두 2030세대가 5060세대 보다 높았음. 즉, 2030세대는 5060세대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국민 참여확대’, ‘행정절차강화’, ‘기득권양보’, ‘중산층확대’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2030세대 내 성별에 따른 중요도 차이는 ‘행정절차강화’ ‘취업기회 보장’ 항목에서 나타남. 두 항목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2030세대 남성은 다른 세대, 성별과 비교하여 10가지 방안의 중요도를 비교적 높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행정절차 강화’는 유일하게 4.1점 이상이었고, ‘공직청렴도 강화’, ‘취업기회 보장’도 높게 나타났음.

[표 5]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중요도 평균 (세대별, 성별)

(단위 : 점)

	2030세대			5060세대			세대 간 차이 (2030세대-5060세대)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공공정보 공개	3.96	3.94	3.99	3.93	3.95	3.91	0.03
국민참여확대	4.00	3.98	4.02	3.94	3.92	3.97	0.06 [*]
행정절차강화	4.06	3.98	4.13	4.00	3.99	4.01	0.06 [*]
공직청렴도강화	4.05	4.02	4.09	4.00	4.00	4.00	0.05
고등교육기회확대	3.90	3.86	3.94	3.91	3.92	3.90	-0.01
취업기회 보장	4.01	3.95	4.06	3.96	3.97	3.95	0.05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3.92	3.91	3.93	3.91	3.93	3.89	0.01
기득권 양보	3.92	3.87	3.96	3.85	3.86	3.84	0.06 [*]
상류층의 술선수법	3.94	3.91	3.96	3.92	3.92	3.91	0.02
중산층확대	3.94	3.91	3.97	3.88	3.87	3.89	0.06 [*]

주.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Ⅲ. 요약 및 시사점

2030세대가 5060세대보다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응답

- 2030세대는 5060세대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공정성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응답함. 세대 간 차이가 유의미한 항목은 15개 항목 중 ‘취업기회’, ‘법집행’, ‘성별대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사회경제적 분배구조’ 5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 2030세대의 성별 차이를 보인 항목은 2개로 ‘언론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로 2030세대 여성보다 2030세대 남성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공정하다고 인식하였음.
- 성별로 구분하여 세대 간 인식을 비교하였을 때,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세대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2030세대 여성은 5060세대 여성보다 사회에 대해 더욱 불공정하다고 인식하였음.
- 세대 간 격차와 더불어 세대 내 계급에 따른 공정성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개인 소득보다 거처의 점유형태에 따라 인식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음. 개인 월 평균 소득이 높다고 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반면, 거처의 점유형태에 따라 공정하다는 응답 차이가 나타났고 특히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로 거주 중인 집단이 사회에 대해 가장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5060세대보다 2030세대에서 거처의 점유형태에 따른 응답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성별로 구분했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게 나타났음.
- 그러나 주관적 인식지표인 계층이동 가능성을 비교하였을 때, 2030세대 중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에 해당하는 집단은 오히려 노력을 통해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2030세대는 법 제정 및 집행 기관인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음. 모두 법과 관련된 기관이라는 점이 주목할만한 지점임.
- 5060세대와 비교하여 2030세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 참여확대’, ‘행정절차 강화’, ‘기득권양보’, ‘중산층확대’를 꼽았음. 또한, 2030세대 남성이 여성보다 ‘행정절차 강화’와 ‘취업기회 보장’ 항목을 중요하다고 인식함.
 - 2030세대 남성은 다른 세대 및 성별과 비교하여 공정성한 사회를 만들기위한 10개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특히, ‘취업기회 보장’에 대해 2030세대 여성은 5060세대와 중요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나 남성이 높게 응답하여 세대 간 응답 격차가 발생하였음.
- 5060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공직청렴도 강화’는 개인의 윤리의식과 관련되는 방안인

반면, 2030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행정절차 강화’는 명확한 체계 및 규칙과 관련된 조직과 구조에 대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서 세대 간 관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분석 결과, 2030세대가 5060세대 보다 사회에 대해 불공정하다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청년세대는 ‘공정성’에 대해 더욱 민감한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2030세대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만한 결과임.
- 세대 내 계급에 따른 공정성 인식을 비교하였을 때, 개인의 소득보다 거처의 점유형태가 더욱 뚜렷하게 인식격차를 보여주었음. 이는 청년세대에서 부의 되물림이 단적으로 보이는 거처의 점유형태가 개인소득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계급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을 시사함.
- 또한, 2030세대와 5060세대의 공정성 인식 차이는 적은 반면, 거주형태에 따른 인식 격차는 세대 내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세대 간 격차보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공정성 인식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쟁은 사회적 계급 차원에서도 살펴봐야하는 문제임. 특히, 2030세대 내 성별, 거주형태별 공정성 인식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세대 내 격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2030세대 중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에 해당하는 집단이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다른 집단보다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가능성의 괴리가 큰 집단이 2030세대에 존재함을 시사함.

참고문헌

- 신진욱. (2022) 그런세대는 없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 개마고원.
- 한국행정연구원.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구글트렌드”. 2022년 9월 29일 접속, <https://trends.google.com/trends/?geo=KR>
- 연세대 재학생 3명, 청소노동자 집회 소음에 민·형사 소송 . (2022년06월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157800004?section=search> .